

오직^(주)

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승일벤처타워 705호 오직(주) / ☎ 1599-0657 / FAX 02-6455-1157 / <http://www.ohjic.com>

발신자: 오직주식회사

수신자: 원천교회 담임목사 귀하 (참조: 교회 사무 담당자)

제 목: 오직 서버 침해사고에 따른 귀 교회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및 성도 통지 협조 요청

귀 교회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지난 10월 7일 보안 안내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. 오직주식회사는 귀 교회의 교인 정보 관리를 맡은 업체입니다. 당사 서버가 해킹을 당해 귀 교회가 맡겨 주신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되었기에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. 믿고 맡겨 주신 정보를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. 성도님께 알리는 데 필요한 명단·문안·발송은 당사가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.

1. 사고 개요

- 10월 20일부터 PHP(웹사이트에 널리 쓰이는 프로그램 언어)의 긴급 보안 결함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킹 경보가 이어졌습니다. 당사는 10월 21일 밤 이에 대비한 긴급 점검을 하던 중 외부 공격자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.
- 조사해 보니 공격자는 10월 19일부터 당사 웹 프로그램의 오래된 구성 요소에 있던 결함을 통해 서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. 당사는 발견 즉시(21일 밤 11시경) 공격을 끊고 침입 경로를 막았습니다.
- 그러나 공격자는 서버에서 미리 빼낸 접속 정보로, 차단 이후인 22일 새벽 별도 저장소에 있던 옛 백업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. 당사는 22일 오전 이 경로까지 막았고, 지금까지 확인된 침입 경로는 모두 차단한 상태입니다.
- 서비스 중단, 자료 변조, 금전 피해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.

2. 교회에서 궁금해하실 점

- **오직은 최선을 다했습니까?**
당사는 평소 서버 접근 제한, 정기 보안 점검, 백업 등 보안 조치를 해 왔습니다. 이번에도 전 세계 경보에 맞춰 밤사이 긴급 점검을 하다가 침입을 찾아내 바로 막았습니다. 그러나 오래된 프로그램 구성 요소 하나를 미리 찾아 없애지 못했고, 그 틈으로 공격자가 들어왔습니다. 결과적으로 정보를 지키지 못했기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. 부족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- **왜 최신 자료가 아니라 2019년 5월 2일 자료가 나갔습니까?**
특정 교회를 노린 공격이 아니라, 자동화된 공격 도구가 서버 곳곳을 뒤지는 과정에서 발견한 옛 백업 파일을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유출된 자료가 2019년 5월 2일 시점의 것입니다. 현재 운영 중인 자료가 추가로 유출되었는지는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, 확인되는 대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
- **왜 오래된 자료를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까?**
당사는 백업 자료를 정해진 기간만 보관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. 그러나 2019년 5월 2일에 별도 저장소에 만들어 둔 백업 일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. 이를 찾아 지우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당사의 관리 소홀입니다. 해당 자료는 모두 삭제하였고, 모든 저장소를 다시 점검해 보관 기간이 지난 자료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- **앞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?**
 - ① 운영 서버에서 쓰지 않는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모두 걷어내고, 정기 점검 항목에 넣었습니다.
 - ② 서버 접속 권한을 사람·용도별로 나누고 꼭 필요한 만큼만 주도록 바꾸고 있습니다.
 - ③ 모든 저장소에 백업 보관 기한을 정해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
 - ④ 조치 결과는 귀 교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.

3. 귀 교회 유출 자료

- 자료 시점: 2019년 5월 2일 백업 교적 자료

- 대상: 당시 교적에 등록된 교인 6,241명 (휴대폰 번호 보유 3,278명)
- 유출 항목: 이름, 휴대폰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, 생년월일, 성별, 직분, 세례 정보, 직업·직장, 가족관계, 교적 메모 (사람마다 다르며 첨부 작업표에 표시)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계좌번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위 자료는 2019년 5월 2일 시점의 백업 자료로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 통지 대상이며, 사람별 유출 항목은 첨부 작업표(암호 파일)에 정리하였습니다.

4. 통지 의무

-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, 교인 정보의 처리자인 교회 명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 통지 기한은 **2026년 10월 24일(토) 23시**입니다.
-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성도님에 한하여 교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5. 교회 협조 요청 사항

- 10월 23일(금): 통지 방법을 회신하여 주십시오. ① 교회에서 직접 문자 발송 또는 ② 당사가 교회 발신 번호로 대행 발송(교회 현재 교적의 성도 이름·휴대폰 명단을 암호 파일로 보내 주시면 당일 발송 후 즉시 파기).
- 10월 24일(토) 23시까지: 첨부 작업표의 성도님께 교회 현재 연락처로 첨부 통지문을 개별 발송(문자·전화·이메일)하여 주십시오.
- 연락처가 없는 성도님을 위해 첨부 게시문을 교회 홈페이지(공지 고정·팝업) 또는 교회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주십시오.
- 통지를 마치시면 발송 건수와 게시 여부를 이메일(help@ohjic.com) 또는 카톡상담으로 간단히 알려 주십시오. 10월 28일(수) 당사에서도 전화로 확인드리겠습니다.

6. 첨부 및 문의

- 첨부: ① 원천교회 유출대상자 통지작업표(암호 파일, 암호는 유선 안내. 교회 지정 책임자만 열람, 외부 전달 금지) ② 성도 통지 자료(통지문 양식, 게시문·팝업·주보 문안, 성도 문의 응대 문답)
- 피해 보상: 당사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(한화손해보험)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번 사고의 보험 접수를 마쳤습니다. 피해를 입은 성도님이 당사 창구로 접수하시면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보험사 절차에 따라 개별로 보상을 진행합니다. 교회에서는 접수만 안내해 주시고 보상 금액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문의·피해 접수: 운영팀 김영혁 팀장 / 카톡상담 오직(주) / 고객센터 ☎ 1599-0657 / 이메일 help@ohjic.com
-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. 문의는 카톡상담 또는 이메일로 주시고, 통화가 꼭 필요한 경우 카톡상담에 전화 요청을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전화 드리겠습니다.

이상.

오 직 주 식 회

